

01 교회소식

성령의 역사로 세계를 ...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베풀고 계신다.

02 생명의 말씀

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면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영적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03 기획특집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겸손과 섬김, 사랑의 향을 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이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

04 간증

“저도 권능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로 결석의 극심한 통증이 순간에 사라진 윤두석 집사와 만민뉴스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케냐 사무엘 형제 간증.

만민뉴스

제822호 2018년 1월 1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권능의 손수건을 통한 성령의 역사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奇事)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 4:48) 하신 말씀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어야만 한다.

이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주님의 말씀대로 표적과 기사,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을 확증해 성경이 참임과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사도행전 19장 11~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셨다.

오늘날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참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

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 역사는 크고 놀라워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손수건 집회가 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재록 목사의 권능이 커지는 만큼 그 치료의 속도가 빨라지고 역사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76억의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까지, 2018년 새해에도 우리 교회는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창대히 이루기 위한 믿음의 행군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희귀병에 걸려 하반신이 마비됐던 제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습니다!”

막막 조셉 델핀 성도
(25세, 필리핀 까비떼만민교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저희 가정이 크리스천이 되어 기쁨으로 충만해진 지금의 이 놀라운 변화는 예상치 못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지요.

2017년 9월, 제게 두통과 고열이 생겨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희귀병 ‘길랭-바레

증후군’(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절연물질이 벗겨져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신경질환)으로 특별한 치료법이나 처방 없이 비타민만 투여한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온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 얼굴과 식도도 마비되어 코에 관을 넣어 음식물을 섭취해야 했지요.

한 달간 입원해 있으면서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하반신은 마비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신이 힘겹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결국 병원 측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으니 퇴원하라고 하여 10월 26일, 병원 근처 할머니 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틀 뒤, 할머니 댁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능히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무수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희선 목사님을 강사로 ‘권능의 손수건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 수많은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지요. 이 말을 들은 저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까비떼만민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2월 3일, 손수건 집회 시 이희선 목사님이 당

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이때 성령의 불이 임해 제 온몸에서 순식간에 따미 흐르더니 다리에 힘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부축을 받고 걸음을 뚝 수 있었지요. 이것도 놀라운데 집에 돌아와서는 보조기를 의지해 걸었고, 이틀 후에는 저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평생 하반신 불수로 지내야 했던 제가 기도받은 뒤 증상이 되자 온 가족이 개종하여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를 치료해 주시고 온 가족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힌두교인, 불교인도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힌두교인이었던 인도의 타라 싱(28세) 성도는 혈액암을 앓고 있었다. 온몸에 힘이 없고 통증과 더불어 심한 가려움증으로 늘 고통 중에 살았다.

그런데 인도 텔리만민교회에 전도되어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참 신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크리스천으로 새롭게 태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불교인이었던 태국 쿤낭 짜이깨우(38세) 성도는 치앙라이만민교회에서 손수건 집회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참석했는데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녀는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수많은 사람이 치

료받아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지금껏 제가 믿던 신은 아무리 정성껏 섬겨도 어떠한 체험 하나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더라고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으니 당연히 기독교로 개종했지요.”라고 고백한다.

아들도 권능의 손수건으로 피부병을 치료받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간증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
(마가복음 2:5~12)

나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행함으로 내보였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기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믿음의 받침대를 든든히 세워 놓았던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으려면 자신이 가진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믿음의 받침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등 최소한의 기초적인 말씀을 들어 지식적인 믿음이라도 갖고 나와야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고를 당하거나 중한 질병에 걸려 기도받으러 나올 때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라는 최소한의 계명을 지키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약 2:26).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임으로 믿음의 받침대를 든든히 세워 놓아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함은 물론, 금식이 주관되면 금식을 하고 때론 철야기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전도, 봉사, 섬김, 구제 등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선행을 해야 하지요.

이렇게 행함으로 믿음을 내보일 때, 즉 사람 편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놓을 때 영적인 믿음이 임할 수 있습니다.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이 있으면 사람 편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준비했다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려 해도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 일으켜서 믿음의 받침대가 세워지지 못하게 합니다. 응답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지식적인 믿음마저 잃게 되며, 예전에 들은 간증이나 자신의 체험까지 우연의 일치로 여기게 되지요. 따라서 믿음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혹여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 주시겠다.’ 생각하며 힘이 빠지는 분이 계신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 죄의 담이 있다면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죄의 담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행함으로 받침대를 잘 세워야 하며, 이것이 바로 사람 편에서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 편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지붕에서 들것에 누운 채 내려진 중풍병자를 바라보신 후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중풍병자나 네 친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중풍병자와 네 친구가 마련한 믿음의 받침대 위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얹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중풍을 앓던 사람이

순간에 자기 발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유유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임하면 일시에 놀라운 변화와 응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은 것도 자신의 믿음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었기에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고백하며 믿음의 받침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하실 때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니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놓았던 믿음의 받침대가 흔들리다가 쓰러지자 물 위를 걷는 역사도 끝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되 “나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얹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금식도 했으니까.’ 하면서 무턱대고 내 생각과 방법, 계획대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때가 바로 응답의 때입니다. 마치 마른 땅이 비에 흠뻑 젖은 것처럼, 나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믿음으로 충만할 때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바로 역사해 주십니다(요일 3:21~22). 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응답은 믿음의 받침대를 혼자 잘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세워야 하지요. 이러한 영적인 법칙을 잘 터득하여 소원하는 일마다 응답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소문을 듣고 네 친구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그 집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의 침상을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린 결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즉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영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람 편에서 믿음을 내보여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야 합니다

‘사람 편에서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서 아는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해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받침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중풍병자나 그의 친구들

2.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영계의 법칙을 잘 아시기에 응답을 주시기 전에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2절에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 리 은 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삶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크리스천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향이 날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겸손과 섬김의 향’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느낀 것은 겸손과 섬김이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요 14:11) 하신 대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셨다.

그럼에도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섬기셨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므로 때론 잡수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셨지만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 주셨다. 이러한 겸손과 섬김의 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

고 변화시켰다. 크리스천에게도 자신을 낮추며 섬김으로 겸손과 섬김의 향이 나와야 한다.



역지로나 다듬어진 교양에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겸손과 섬김의 향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때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전하는 복음도 잘 심어질 수 있다.

가령, 뒷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게 인사하지만 뒤에서는 흥을 분다거나, 자신이 뒷사람이라 하여 인사를 받기만 하고 아는 체도 안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겸손이나 섬김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자신이 잘못하고도 꾸중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토라지며 자신을 위한 권면이나 지적도 서운하게 받는다면, 스스로 높임받고 섬김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에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니

지적이나 책망이 듣기 싫은 것이다.

만일 상대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여 말한다. 하지만 그 판단은 틀린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고 상대보다 높이 두었기에 감정에 부딪히고 다툼이 되기도 한다.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부딪힘이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상대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이해가 되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등 상대의 마음이 느껴지니 상대에게 맞는 답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섬김으로 발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반드시 상대에게 감동을 준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의 향’

제자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의 나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하시며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셨다. 바울은 예전에 교회를 잔멸하고 주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지만 주님께서 그를 친히 만나 주셨고 용서하셨으며 사도로 삼아 주셨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로 변화시킨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졌다. 주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우리를 위해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으며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온전히 희생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고 또 주되 아낌 없이 줄 수 있는 사랑,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서 용서하신 것처럼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의 향을 발한다면 상대의 마음도 감동을 받아 변화된다. 영적인 사랑은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도 녹일 수 있으며 단단히 굳어진 마음도 풀 수 있다.

이러한 사랑의 향은 결국 자신도 상대에게 사랑을 받게 한다. 혹여 ‘나는 왜 사랑을 받지 못할까? 내가 가진 육적인 조건이 좋지 않아서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육적인 사랑은 잠시일 뿐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겉데기인 육적인 조건이 바뀌거나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이내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변함없는 참 사랑을 얻으려면 사람의 알맹이인 영혼이 사랑스럽게 변화되어야 한다. 악이 없는 선한 마음, 육이 없는 영의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받게 되고 이것이 참 사랑이다.

영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향기는 누구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진실함을 느끼기에 그런 향을 발하는 사람에게 자연히 마음이 열리게 되고 자신도 마음에서 우리 나오는 사랑을 주게 된다.

이처럼 그의 영혼이 너무 사랑스럽기에 그의 육에 속한 것도 소중하게 아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다(삼상 16:7).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이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켜 행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2018 HAPPY NEW YEAR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8.1.14~2018.1.20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목자와 하나 ▪ 성령
- 사랑장 17-20 ▪ 주님의 탄생 2
- 성경적 결혼관 1-2 ▪ 천국 29-35
- 믿음을 책망하시니 1-7 ▪ 축복 7-8
-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7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1-2

GCN TV 설교

- 복 있는 사람은 (이수진 목사)
- 하나님의 영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77 (이희선 목사)
- 옮기 강해 27 (신동초 목사)
- 5계명 (정구영 목사)
- 선한 목자 (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권능 스페셜 11 ▪ 마지막 때 11
- 모두 드려요 26 ▪ 창조와 과학 21
- 옛날 옛적에 (시즈2) 9
- 내 마음의 찬양 24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90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혜보) 20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5
- 페루 연합대성회 3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7

전국 어디서나 **alltv 882**번 **RokuTV**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요로 결석의 극심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윤두석 집사 (38세, 2대대 12교구)

2017년 12월 23일(토) 낮 12시경, 축구를 하기 위해 운동장에 갔습니다. 날씨가 몹시 추워 잠시 스트레칭을 하고 축구를 시작한 지 10분도 채 안 되어 왼쪽종아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종아리에는 피멍이 들었고 통증도 극심했습니다.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다친 다리를 땅에 딛을 수 없어 오른쪽 발로 짚어 걸음을 하여 차에 탔지요. 그런데 휴대폰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ARS(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서너 차례 받자 신기하게도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 같은 체험을 당회장님께 간증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24일(주일), 제가 소속된 1-2남선교회에서 당회장님을 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녁 7시 30분경에 시작되어 당회장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등쪽에 답이 오는 것처럼 빠근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시간을 마치고 당회장님께 “어제 당회장님 환자기도로 종아리 근육 파열을 치료받아 통증도 없고 잘

걷고 계단도 잘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뒤 가족과 함께 집에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도중, 아까 걸렸던 등 쪽에서 다시 통증이 시작되더니 속 기관까지 저미는 듯 극심해졌고 도저히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로 되돌아와서 WCDN(세계기독교의 사네트워크) 사무실에서 초음파사진을 촬영했는데, 요로 결석이었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참으며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 무작정 당회장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이때 저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짧은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계셨지만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몸부림쳤지요. 잠시 후 당회장님 기도를 받기 위해 당회장님 집무실을 향해 걸어갔는데 이미 제 소식을 들으신 당회장님께서 문을 열고 서 계셨습니다.

당회장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흘렀고 통증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23년간 교회에 출석했는데 당회장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작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자



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아버지의 모습으로 제 마음과 닿았고, 성도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보여 오신 인내의 세월이 너무나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과 저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서는 무릎을 꿇고 있는 저를 향해 몸을 낮추셔서 오른쪽 등 옆구리 쪽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미 통증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저는 그 자리에서 가볍게 일어나 그동안 미지근했던 신앙을 청산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겠노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순식간에 요로 결석의 통증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며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학창시절, 두 눈 때문에 남모름 아픔을 겪었습니다. 백내장으로 인해 고등학교 때 왼쪽 눈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에 오른쪽 눈마저 이상 증세가 있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눈이 아주 민감해져서 미동의 바람이라도 느껴질 때면 통증이 뒤따랐고 시력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3개월 동안 학교에도 못 갔지요. 왼쪽 눈의 시력마저 떨어져 안경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안구종양으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실명될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2013년 1월 초, 우연히 ‘만민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촌이 다니던 교회의 신문이었는데 글 읽기를 좋아했던 저는 신문을 꼼꼼히 읽었지요. 당시 눈에 질병을 앓고 있던 터라 저는 무엇보다 치료받은 간증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치료받



“안구종양을 치료받아 시력이 좋아져 안경도 벗고 축복도 받았어요!”

사무엘 오몬디 아마타 형제 (29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사촌을 따라 교회에 발을 디딘 것이 인연이 되어 저는 1월 6일,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양 떼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정명호 목사님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시는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그동안 행했던 잘못

된 행실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마음 다해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1월 20일, 손수건 집회 시 정명호 담임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을 때 오른쪽 눈에서 왼쪽 눈으로 아픈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뒤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경을 벗자 모든 사람과 사물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던 눈의 모든 증세가 싹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저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2015년 9월에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 마음에 정부 기관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본 후 정명호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정부기관의 제약 개발 연구원으로서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었지요. 그 뒤에는 정직원이 되기 위해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에 참석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공무원을 축소한다고 하여 현실은 더 어렵게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2017년 3월, 정식으로 공무원이 된 저는 급여가 인상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저를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목자의 공간 안에서 축복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62)513-2455, 010-8888-072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909-286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감탄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